지역 소식통

부안군 민·관 TFT팀 구성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부안군은 3월 초부터 관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TFT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는 설문지(조사표) 작성을 통해 실시하고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오는 5월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정책 및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복지안전망 강화

부안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복지기관, 시설, 경로당, 학교 등 휴관이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릴 상황을 우려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위하여 마을희망지기를 활용한 복지안정망 구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희망지기는 복지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2019년 830명의 마을희망지기를 위촉했으며, 그동안 꾸준히 빈곤 위기가구, 돌봄 위기가구, 취약 가구 등 복지위기가구를 상시 발굴·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희망지기등이 발굴한 긴급지원세대에 대하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 긴급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코로나 극복 모두 힘내요

고창군민, 장어즙·양파즙·고구마 등 잇단 기부
의료진·공무원·영남지역 자매도시 응원 나서

고창군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 영남지역 자매도시 응원에 나섰다.

9일 오전 고창군 풍천장어 양식장인 '대농양만'의 유삼경 대표가 장어즙 200포(4박스)를 "코로나19 대응 근무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고창군에 기부했다.

유 대표는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원기회복에 좋은 보양식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창군 해양수산과 라남근 과장은 고창군보건소와 고창병원을 직접 찾아 근무자들에게 장어즙을 전달했다.

고창영어조합법인(대표 이재정)도 장어즙 50박스를 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전달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탰다.

힘의 상징인 '고창풍천장어'는 단백질과 비타민A 함량이 높아 스태미나 식품으로 오래전부터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아오고 있다.

고창군의 대표 농특산품인 고구마를 활용한 간편식품인 '구운고구마' 150박스도 비상근무중인 전북도청 도민안전실과 보건의료과, 고창군 보건소, 고창병원 등에 전달됐다.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서재필 대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중인 행정 및 보건·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육) 역시 양파즙 500포(10박스)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전북도청 도민안전실과 보건의료과에 전달했다.

특히 지역전통식품 가공업체인 '사임당푸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대응 중인 고창군 자매도시 부산시 동래구를 응원하기 위해 송편 1만개(500만원 상당)를 보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군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와중에, 주민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밝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하다"며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불법 광고물 '폭탄전화'로 막는다

16일부터 자동전화 시스템운영
위반사항 안내·과태료 경고등

정읍시가 이달 16일부터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명함형 광고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화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착신자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물에 집중·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광고 번호를 무력화해 불법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안내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광고주 의식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 다원시스 정읍철도공장 신축 현장 방문

유진섭 시장이 최근 입암면 철도농공단지에 들어서는 (주)다원시스 철도공장 신축 현장을 방문, 시찰하고 있다.

시설 공사 진행 상황 등 점검

유진섭 시장이 최근 입암면 철도농공단지에 들어서는 (주)다원시스 철도공장 신축 현장을 방문, 시찰하고 있다.

유 시장은 시설 공사 진행 상황과 철도차량의 생산공정을 점검 후 현장 근로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한편, (주)다원시스 정읍공장은 330억 원을 투자해 최신식 전동차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이 시작되면 관련 협력업체들의 이전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재봉기술을 가진 고창군민들이 직접 수제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다.

천마스크 만들어 재능기부 '훈훈'

고창군 여성단체협·여성회관 교육생, 위기상황 극복 동참

최근 고창군여성회관 제3강의실. 원단을 치수에 맞도록 가위로 자르고 재봉틀을 돌려 박음질 한다. 천을 자르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 마스크를 만드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하다. 천 양쪽에 끈을 연결하니 훌륭한 수제 마스크가 탄생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재봉기술을 가진 고창군민들이 직접 수제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다. 정성스럽게 만든 마스크는 소외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량 기부된다.

고창군여성회관 교육수강생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5일부터 여성회관에서 천 마스크 제작 재능기부를 통해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천 마스크 제작은 고창군 여성회관 양장기능사 교육수료생들의 모임에서 시작됐다. 소식을 들은 손뜨개반, 떡디저트반 수강생은 물론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도 천 마스크를 제작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김경숙씨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면 어떨까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며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제작한 천 마스크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함께 포장해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고창군 임채남 사회복지과장은 "면 마스크에 대한 호응도를 고려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후 마스크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며 "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창군 여성회관은 35개 과정 55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중 10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39명이 취업해 여성취업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하세요"

고창군이 2020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27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이상부터 만 75세미만(45년생~94년생) 여성농어업인, 만 20세이상 부터 만 24세(94년생~98년생)의 기혼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타 분야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전업적 직업보유자,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복지 서비스 수혜자, 농지소유면적 5㏊ 이상 농가, 영농경력 1년 미만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고창군내 각 지역 농협에서 생생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처를 확대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해당 농협은행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연간 15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용품, 수영장, 펜션, 민박, 목욕탕, 서점 등에서 이용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로 여성농업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중 생생카드 지원이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